

미중 무역전쟁 일시 휴전했지만 풀어야할 숙제 산적

미중 합의, 구체성 부족하고 협상 기간 짧아

中 구조적 문제 단기 타결 쉽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지만 미중 갈등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감은 여전하다. 양국이 별이게될 무역 협상에 민감한 요소가 많아 9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합의가 도출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이 최악의 국면은 피해 갔지만 향후 협상에서 갈등이 재연될 소지는 남아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앤디 커틀러 전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FT에 "이것(미중 합의)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과정이 끝난 것과는

거리가 멀다"며 "모든 시선은 미중 정상회담의 만찬 테이블에서 무역협상 테이블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앤디 로젠 매슈스 아시아 투자전략가는 향후 진행될 무역 협상이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어려운 선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과 경제적·전략적 힘을 나눌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시 주석은 중국이 힘을 얻는 과정에서 세계 경제 시스템의 규칙을 준수하고 투명해져야 한다는 점을 수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전문가들이 과도한 낙관론을 경계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합의에 구체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번 합의에 따라 90일 간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에 중국은 양국간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는데 동의했다.

또 양측은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 문제, 비관세 장벽, 사이버 안보, 서비스·농업 등과 관련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국이 어느 정도의 미국 제품을 수입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향후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 지적권 침해와 비관세 장벽에 대한 협상은 중국 경제 정책의 구조적인 부분을 다루는 문제여서 단기간에 결론이 나기 어려운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결국 미국은 이 협상을 통해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 정책을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크지만, 2025년까지 첨단 산업

을 세계 선두권에 올려놓겠다는 목표를 세운 중국이 쉽게 양보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윌리엄 재닛 주중 미국상공회의소 의장은 향후 협상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중국 정부의 산업 지원과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한 차별적 정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금융센터는 이날 배포한 미중 정상회담 결과 및 평가에서 "내년초(무역전쟁) 확전 가능성은 축소됐지만 12월 중순부터 시작될 협상 내용에 따라서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3월 1일 이전이라도 갈등이 재연될 소지는 남아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새해부터 전 세계가 관세 전쟁에 휩싸이게 될 위험이 낮아지면서 시장은 일단 안도감을 표시하고 있다.

CNBC에 따르면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이날 오후 오후 6시(미국 동부시간 기준) 거래 시작 이후 급등세를 나

타내고 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선물은 현재까지 1.69% 상승했고, 스탠더드앤amp;포어(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선물도 각각 1.62%와 1.97%씩 올랐다.

헬렌 차오 백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 중국·아시아 애널리스트는 이날 보고서에서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인 결론"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내 강경파들이 불가능한 요구를 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함께 무역 합의를 만들려 한다는 증거가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사차 티하니 TD시큐리티스 신흥시장 부팀장은 "이것은 시장에게는 건설적인 뉴스이지만 아직 큰 우려가 남아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 이슈는 90일 만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뉴시스

농협상호금융,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시스템 구축 완료

농협상호금융(대표이사 소성모)은 지난달 29일 '위험기반(RBA)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시스템' 구축 완료 보고회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가졌다고 3일 밝혔다.

RBA(Risk Based Approach : 위험기반 접근법)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부분별 관리수준을 차등화 하는 전사 위험평가체계(위험도가 높은 분야에는 강화된 조치, 위험도가 낮은 분야에는 간소화된 조치를 적용하는 접근법)로 자금세탁방지업무에서 선진화된 금융기법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강남경 상호금융경영지원본부장을 비롯, 상호금융 임직원들이 참여해 글로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강력한 내부 통제 기반 구축을 핵심과제로 개발한 RBA시스템 프로젝트의 추진, 경과, 결과,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농협상호금융은 이번 RBA시스템 구축을 통해 농, 축협 자금세탁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 실질적인 자금세탁위험 발생을 감소할 수 있게 됐으며 감독기관의 관리, 검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위험관리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창립 49주년 기념 고객 감사 정기예금 특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오는 12월 10일 창립 49주년을 맞아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창립 49주년 기념 고객사랑 정기예금'을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특판예금은 총한도 1,000억원으로 3백만원 이상 30억원 이내로 가입 가능하고 기간은 6개월 및 12개월이다. 금리는 우대조건 없이 6개월은 연2.05%(우대금리 연0.65%), 12개월은 연2.35%(우대금리 연0.8%)가 적용되며 전북은행 전영업점 창구에서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일반 법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jbbank.co.kr) 또는 콜센터(1588-4477)에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한은 금리인상에도 은행株 부정적 전망

경기둔화 우려에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에 회의적

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기준금리를 1년 만에 인상했지만 은행주의 시계는 밝지 않다. 향후 경기둔화에 따른 부담으로 향후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는 지난달 30일 통화정책회의를 개최해 기준금리를 연 1.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해 통화정책 방향을 견속으로 전환하고 1년 만에 두 번째 인상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25%보다 0.50%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날 신한지주(-2.25%), KB금융(-2.68%), 하나금융지주(-2.84%) 등 은행주는 일제히 하락했다. 증권가에서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에 대해 경기 둔화 우려로 내년 기준금리가 묶일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관측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가 높을수록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폭이 커져 은행의 수익에 유리하다. 또한 한은의 금리인상 압력으로 작용했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느슨해진 것도 은행주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지난달 28일 현지시각 기준금리에 대해 "중립금리 바로 밑에 있다"라고 밝혔다.

중립금리란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 없이 잠재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는 이상적인 금리 수준을 뜻한다. 파월 의장이 지난달 3일

"중립금리로부터 한참 멀리 있는 듯하다"라고 했던 때보다 완화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은경완 메리츠증권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30일 금리인상 소식에도 은행주는 하락 마감했다"며 "마지막 금리인상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만큼 뉴스에 듣자마자 은행주를 파는 투자자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산되는 경기 비관론 탓에 인상에 따른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주가에 더 크게 작용했다"며 "추가 축소된 장단기 금리차 역시 향후 은행주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KTB투자증권은 은행업의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제시했다. 김한이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저평가 상태이지만 아직 투자심리 회복, 주기순자산비율(PBR)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심스럽다"며 "PBR은 결국 자기자본이익률(ROE)의 함수인데, 증익이 미미하고 자본규모가 커서 ROE는 하락할 수밖에 없으며 NIM, 성장, 건전성 등 핵심 지표들도 더 개선되기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분석했다.

전배승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금리인상으로 시중은행의 연간 이자이익은 평균 800억원 내외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면서도 "4분기 이후 예대금리 차 확대가 예상되나 NIM 관련 추가모멘텀 회복을 위해서는 내년 추가적인 금리인상 기대감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아동들이 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전북은행, 푸른꿈지역아동센터에 책상·의자·책장 등 지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29일 김제시 요촌동에 위치한 푸른꿈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77호 오픈식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오픈식에는 전북은행 이영태 시외지역금융센터장, 고찬배 김제지점장, 노시형 사회공헌부장, 김제시 인제양성과 최니호 과장, 여성가족과 김원고 아동복지계장,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동의 사무처장, 푸른꿈지역아동센터 백정임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푸른꿈지역아동센터는 2008년 개

소 후 41여명의 아동, 청소년들에게 방과 후 학습지도, 외국어교육, 요일별 특별활동을 하여 아동들의 재능과 인성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북은행에서는 아동들이 좋아하는 색상의 친환경 페인트로 공부방을 밝고 쾌적하게 개선하고 넓은 책상, 의자, 책장 등을 새로운 가구들로 교체해 아동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전북은행 김제지점(지점장 고찬배) 직원들은 건물 2층 공부

방에 직접 가구를 나르고 배치하는 봉사활동을 펼쳐 교사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향후 정기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기로 약속했다.

이영태 전북은행 시외지역금융센터장은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들이 공부방에서 함께 공부하며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며, "전북은행은 아동들이 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부방 지원 사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김상조 "소비자가 시장경제 중심역할... 스스로 설 역량 키워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소비자는 시장경제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주권자"라며 "스스로 설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이화여고에서 열린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소비와 생산의 융합협상이

나타나고 소비자문제의 양상이 단순한 불만처리, 피해구제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참여형태로 달라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빠르게 변화하는 전자상거래 시장 현실에 맞게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전면개정하겠다고 "또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개선해 소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청구대상과 청구구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중제도 개선 ▲온라인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축을 통한 소비자 권의 저해 제도의 발굴·개선 등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과 소비자단체, 학계, 기업체 등 유관기관 인사 4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소비자 운동, 연구, 정책제안 등으로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총 93명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

/뉴시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